

# 융복합 시대 대학생의 사적/공적 자의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효능감의 매개효과검증

윤준현<sup>1</sup>, 손영미<sup>2\*</sup>

<sup>1</sup>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sup>2</sup>진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조교수

## The Influence of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on Vocational Identity in Convergence era: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JunHyun Yoon<sup>1</sup>, Youngmi Sohn<sup>2\*</sup>

<sup>1</sup>Doctoral Student, 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t.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에 따른 학업효능감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 26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은 모두 진로정체감과 학업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학업효능감을 거쳐 진로정체감(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로 이어지는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적 자의식은 진로정체감 하위요인 중 진로재고 요인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공적 자의식은 학업효능감을 부분 매개하여 진로탐색에, 학업효능감을 완전 매개하여 진로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융·복합시대의 진로 교육 및 상담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학업효능감, 진로정체감,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efficacy and vocational identity according to the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263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on self-consciousness, academic efficacy and vocational ident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2.0 and AMOS 22.0. As a result,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vocational identity and academic efficacy. The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had different effects on vocational identity(career exploration, career commitment, and career reconsideration) through academic efficacy. Specifically, the private self-consciousness had a direct effect only on the career reconsideration among the factors of vocational identity. Public self-consciousness was indirectly related career exploration, partially mediated by academic efficacy, whereas the association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career commitment was fully mediated by it.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in convergence era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included.

Key Words : college student, private self-consciousness, public self-consciousness, academic efficacy, vocational identity,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Youngmi Sohn(shonym@konyang.ac.kr)

Received June 8, 2020

Accepted July 20, 2020

Revised June 30, 2020

Published July 28, 2020

## 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진로교육의 핵심 과제이다. 최근의 진로교육은 아동기·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입시 위주의 진학지도를 해주는 것에서 벗어나, 진로체험의 기회 확대, 자유학기제의 도입 등을 통해 그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나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여전히 중고등학교의 생활은 입시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진로 및 전공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모 및 주요 타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이렇게 형성된 진로를 수정하고 협의하는 과정 즉, 진로정체감의 재형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Erikson[2]은 이 시기를 어린 시절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형성된 정체감을 재구성하는 매우 힘들고도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실제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3]의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60%가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으로 졸업 후 진로를 꼽았다. 그리고 2019년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4년제 대학생 18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4]에서도 응답자의 48.6%가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대학생 시기 진로발달 및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한 우선 과제는 자기 이해 즉,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선호와 가치, 능력, 성격적 특성 등을 알고 분석하는 것이다[5].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적인 세계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고 있는가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외부 세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준거 삼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비교 평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즉, 자기 이해는 자신의 내적인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숙고하는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의 과정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의해 인식되는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기, 외적으로 드러난 자기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숙고하는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의 과정이 모두 필요한 것이다[6]. 공적 자의식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정보를 처리하고, 사적 자의식을 통해 탈 맥락적인 개

인 내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7], 자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자의식이 진로발달 및 (진로)정체감의 형성에 유의하게 관련이 있으며, 특히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경향성, 정서, 감각경험 등을 더 잘 자각하고, 그것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었다[8]. 그리고 자신에 대해 상당히 정확하고 상세한 지식을 가지며, 외부의 영향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9]. 이러한 경향성은 정체감의 형성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김미령[10]은 자기에 대한 자각이 높을수록 정체성 혼미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공적 자의식과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도 공적 자의식이 사회적 단서(타인)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예를 들어,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타인에게 비취지는 자신의 실제 인상을 정확히 예언하는 편이며[12], 타인이 사회비교를 할 수 있는 정보와 준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견해, 진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13]. TenBrook[14], 윤지온과 강영배[15]는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진로결정 상황의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해결하도록 도우며, 이것이 학업성취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렇듯 사적 및 공적 자의식이 진로발달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지만, 그동안 진로상담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또한 공적 자의식과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불일치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적 자의식과 진로발달의 정적인 관계성을 보여준 연구결과들[12-15]과 달리, 여러 연구들은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진로선택명확성[16]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진로결정수준은 낮은 경향이 있고[17], 진로불안과 진로 목표불일치 수준[18], 진로미결정 수준[19]은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비일관적인 결과들이 도출된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연구들이 사적 자의식 혹은 공적 자의식 하나만을 변인으로 삼아 종속변인과의 관계성을 보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개인은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두 변인을 하나의 모형에 통합시켜 진로발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진로발달 및 정체

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진로탐색을 위해서는 내적 세계와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므로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함께 관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신이 설정해왔던 진로가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것이었는가에 대해 숙고하고 재설정하는 것에는 공적 자의식보다 사적 자의식이 더욱 관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각각의 자의식이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개발에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진로발달 특히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Porfeli, Lee, Vondracek, Weigold[20]가 개발한 진로정체감 지위 척도(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진로정체감을 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의 하위요인으로 측정하고 있어 진로발달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1]. 또한 진로재고 요인은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이 중고등학생 때 형성된 진로의 재구성과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의식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 있어 학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업효능감은 대학생의 긍정적인 진로발달 및 정체감 형성에 있어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이것은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조작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22].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강점, 소질 등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 이해의 수준이 높아지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진로, 직업, 학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따라서 학업효능감이 올라간다[23]. 그리고 높은 학업효능감은 대학생의 학업성적, 전공지속, 지각된 진로선택지의 범위를 유의하게 예측하며[24], 학습참여수준과 진로성숙도가 높고[23],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결과[25]를 보여준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자의식이 학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6]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은 진로정체감(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은 학업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진로정체감(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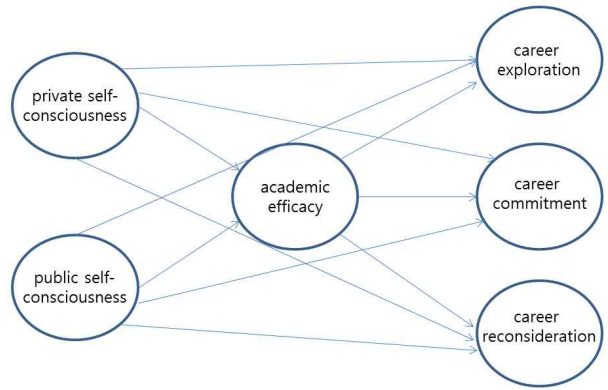


Fig. 1. Mediation model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약 110만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조사 회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설문에 응답하기 전 연구 설명서를 읽고, 연구참여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에 대해 동의한 자만이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중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도 응답문항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총 조사대상자는 263명(남: 133명, 여: 130명)이었다.

### 2.2 측정도구

#### 2.2.1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사적 및 공적 자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Fenigstein 등 [6]이 개발한 자의식척도(Self-Conscious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사적 자의식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주의 초점을 기울이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절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사적 자의식 신뢰도는 .649, 공적 자의식 신뢰도는 .643이었다.

### 2.2.2 학업효능감

학업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박인영 (2001)[29]이 개발·타당화한 학업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과제난이도,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절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신뢰도는 .854이다.

### 2.2.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보라, Porfeli 등[20]이 개발하고 이보라, 정지희, 이정림(2014)이[27]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한국어판 진로정체감지위척도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의 3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절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신뢰도는 진로탐색 .889, 진로몰입 .833, 진로재고 .809이었다.

## 2.3 분석방법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변인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변인의 영향력과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63명이었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0.6%, 여성 49.4%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20.5%, 2학년 29.3%, 3학년 27.0%, 4학년 23.2%이었다(표 1 참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
Male	133	50.6
Female	130	49.4

1 <sup>st</sup> Grade	54	20.5
2 <sup>nd</sup> Grade	77	29.3
3 <sup>rd</sup> Grade	71	27.0
4 <sup>th</sup> Grade	61	23.2
Total	263	100.0

### 3.2 연구변인의 상관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모두 학업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 변인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그리고 학업효능감은 진로탐색, 진로몰입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 $p < .01$ )을 보였으나, 진로재고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구변인의 왜도는 최소 -.679에서 최대 .028을 보이고, 첨도는 최소 -.035에서 최대 1.191의 값을 보여 절대값 3을 넘지 않아 모집단의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하였다[26].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 correlation

	1	2	3	4	5	6
1	1					
2	.730**	1				
3	.227**	.274**	1			
4	.370**	.413**	.486**	1		
5	.178**	.201**	.424**	.503**	1	
6	.247**	.220**	.013	.033	-.356**	1
Mean	3.42	3.43	3.26	3.19	3.23	3.24
SD	.45	.53	.59	.58	.65	.57
Skew	.028	.002	-.173	-.129	-.679	-.225
Kurtosi	.603	-.035	1.191	.490	.902	.636

1. Private Self-Consciousness 2. Public Self-Consciousness  
3. Academic Efficacy 4. Career Exploration 5. Career Commitment  
6. Career Reconsideration

### 3.3 자의식-학업효능감-진로정체감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Table 3. Variable direct / indirect / Total effect

	Direct Effect	b	β	S.E	C.R
Efficacy ← Private S-C		0.075	0.057	0.113	0.659
Efficacy ← Public S-C		0.257	0.232	0.097	2.665**
Exploration ← Efficacy		0.441	0.400	0.058	7.584***
Commitment ← Efficacy		0.391	0.398	0.057	6.867***
Reconsideration ← Efficacy		-0.054	-0.056	0.060	-0.901
Exploration ← Private S-C		0.178	0.124	0.106	1.675

Commitment	← Private S-C	0.057	0.044	0.104	0.543
Reconsideration	← Private S-C	0.238	0.189	0.110	2.158*
Exploration	← Public S-C	0.261	0.213	0.092	2.836**
Commitment	← Public S-C	0.065	0.060	0.090	0.724
Reconsideration	← Public S-C	0.104	0.097	0.095	1.097
Indirect Effect		b	β	S.E	p
Exploration←Efficacy←Public S-C		.114	.093*	.038	.016
Commitment←Efficacy←Public S-C		.101	.092*	.037	.016
Reconsideration←Efficacy←Public S-C		-.014	-.013	.018	.354
Exploration←Efficacy←Private S-C		.033	.023	.037	.605
Commitment←Efficacy←Private S-C		.029	.023	.037	.521
Reconsideration←Efficacy←Private S-C		-.004	-.003	.011	.471
Total Effect		b	β	S.E	p
Exploration	← Public S-C	.375	.306*	.084	.020
Commitment	← Public S-C	.166	.152	.096	.070
Reconsideration	← Public S-C	.090	.084	.084	.261
Exploration	← Private S-C	.211	.147	.085	.062
Commitment	← Private S-C	.086	.067	.100	.452
Reconsideration	← Private S-C	.234	.186*	.088	.022

\*p<.05, \*\*p<.01, \*\*\*p<.001

S-C : Self-Consciousness, Efficacy: Academic Efficacy

Exploration: Career Exploration,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Reconsideration: Career Reconsideration

대학생의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학업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표 3참조), 공적 자의식은 학업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나( $\beta=.232, p<.01$ ), 사적 자의식은 학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beta=.057, p>.05$ ).

사적 자의식은 진로재고에 정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 $\beta=.189, p<.05$ )가 있었으나, 진로몰입과 진로탐색에는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적 자의식은 진로탐색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beta=.213, p<.01$ ), 진로몰입과 진로재고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효능감은 진로탐색( $\beta=.400$ )과 진로몰입( $\beta=.398$ )에 유의도 .001 수준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진로재고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공적 자의식은 학업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탐색(.093,  $p<.05$ )과 진로몰입(.092,  $p<.05$ )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진로재고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반면, 사적 자의식은 학업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소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즉, 공적 자의식은 학업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탐색에는 정적으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진로몰입에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3.4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매개모형의 간접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참조). 공적 자의식이 학업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탐색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계수는 .093으로, 95%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020~.175)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학업효능감이 높아지며, 높아진 학업효능감이 진로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자의식이 학업효능감을 경유하여 진로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계수는 .092였으며, 95%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018~.181)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학업효능감이 높아지며, 이것이 대학생의 진로몰입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 Mediation effect Significance Test(Bootstrapping)

Path	CI(95%)		
	Estimates	Lower	Upper
Public S-C →Efficacy →Exploration	.093	.020	.175
Public S-C →Efficacy →Commitment	.092	.018	.181
Public S-C →Efficacy →Reconsideration	-.013	-.059	.018
Private S-C →Efficacy →Exploration	.023	-.056	.103
Private S-C →Efficacy →Commitment	.023	-.048	.119
Private S-C →Efficacy →Reconsideration	-.003	-.048	.006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진로정체감(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학업효능감이 유의하게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모두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진로탐색과 진로몰입 수준을 보였으며, 진로에 대한 다시 생각하는 재고 수준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는 높은 사적 및 공적 자의식이 자신의 내·외적인 측면에 대해 더욱 통합적으로 이해

하도록 도우며[7], 높은 자기 이해수준은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5,13]을 보여준다.

둘째, 사적 및 공적 자의식과 학업효능감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학업효능감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기존 연구들은 자의식과 학업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본 연구결과는 두 변인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준 연구[23]를 지지하였다.

셋째,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학업효능감을 거쳐 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에 미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사적 자의식은 진로정체감 하위 요인 중 진로재고 요인에 대해서만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로탐색과 진로몰입에는 유의한 직·간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로재고는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 현재의 진로설정을 재검토하고,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직업세계를 탐색하면서 자기와 더 부합하는 직업세계를 찾기 위한 준비과정이다[21]. 이것에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진로가 나의 내적인 특성에 부합하고 나와 잘 맞는가에 대한 숙고 과정이 포함된다면 사적 자의식과 관련이 높다. 대학생 시기는 부모 및 주요 타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로, 본 연구결과는 사적 자의식이 대학생의 진로재고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공적 자의식은 학업효능감을 부분 매개하여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 자의식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사회적 주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의식이다[6]. 따라서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나를 둘러싼 직업세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직업세계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며, 더불어 타인을 준거삼아 자신이 진로발달을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지 비교한다[13]. 본 연구결과는 공적 자의식의 이런 특성이 높은 학업효능감으로 이어져 진로탐색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진로탐색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공적 자의식은 학업효능감을 완전 매개하여 진로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로몰입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선택한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경향성이 높다[19].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진로를 확신하고, 그 진로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결과는 학업효능감이 진로몰입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 공적 자의식이 높아도 이것이 학업효능감을 매개해야만 높은 수준의 진로몰입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효능감이 진로발달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23-25].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사적 및 공적 자의식이 진로정체감과 관련이 높은 변인이며, 특히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각각이 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에 기여하는 바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명확화 교육 및 전략을 수립할 때,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진로명확화 및 진로재설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가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인지, 자신의 내적 특성과 부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숙고하는 사적 자의식의 활용이 필요하다.

진로탐색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부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외부자태에 준해 자신의 현재 모습을 분석하는 공적 자의식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융·복합시대를 맞이하여 노동시장 및 직업세계의 급격한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유연히 다가오는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활용함으로써[30] 자신을 외부 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공적 자의식의 활용이 필요하다.

진로몰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업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전공 및 학습몰입의 전략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공적 자의식이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타인과 외부세계로부터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3-15]는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 그동안 공적 자의식은 개인의 정신건강, 적응,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로 다루어왔으며, 그것의 순기능적 측면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15].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있어 공적 자의식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현실적·학문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를 통해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대학생 시기는 진로발달이 진행되고, 진로정체감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진로발달을 '과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진로정체감을 정적인 개념이 아닌 발달과정으로 규정하고 탐색과 몰입,

재고려의 과정을 측정하고 있는 Porfeli 등[20]의 진로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과정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횡단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진로정체감의 형성과정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자의식과 진로발달에 대한 불일치한 이유 중 하나로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자의식의 수준이나 자기존중감과 같은 자기정의(self-definition) 변인의 관여 역시 불일치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자의식 수준, 자아존중감 정도, 자의식의 현출성(salience) 정도에 따라 진로발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기본전제 안에는 자의식이 자기이해를 높이고, 높아진 자기이해가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가 담겨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자기이해 수준을 측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기이해를 포함한 다중매개에 대한 연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H. Y. Jang, J. Y. Lee, S. R. Yoon & Y. J. Lee (2014). *Free semester system centered on career exploration success factors and support plan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2] E. H. Erikson.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56-121.  
DOI : 10.1177/000306515600400104
- [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2017). *2017 University Career Education Survey*.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4] S. R. Park. (2019). *Half of college students "I don't know what to do yet"*. Joongangilbo.  
<https://news.joins.com/article/23553794>
- [5] S. Y. Lee & J. Song. (2019).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child interaction,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planing in adolescents: Verification of longitudinal changes.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4, 27-50.  
DOI : 10.24159/joec.2019.25.4.27
- [6] A. Fenigstein, M. F. Scheier, & A. H. Buss.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DOI : 10.1037/h0076760
- [7] F. C. Agatstein & D. B. Buchanan. (1984).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the recall of self-relevant info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2), 314-325.  
DOI : 10.1177/0146167284102019
- [8] M. F. Scheier & C. S. Carver. (1977). Self-focused attention and the experience of emotion: attraction, repulsion, ela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9), 625.  
DOI : 10.1037/0022-3514.35.9.625
- [9] M. F. Scheier. (1980).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on the public expression of person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514.  
DOI : 10.1037/0022-3514.39.3.514
- [10] M. R. Kim. (2011).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identity achievement i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2), 721-738.  
DOI : 10.15703/kjc.12.2.201104.721
- [11] J. Choi & K. Hwang. (2020). The effects of nascent entrepreneu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27(1), 15-47.  
DOI : 10.21219/jitam.2020.27.1.015
- [12] E. L. Tobey & G. Tunnel. (1981). Predicting our impressions on others: Effects of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acting, a self-monitoring sub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661-669.  
DOI : 10.1177/014616728174024
- [13] C. Tschopp, D. Unger & G. Grote. (2016). Are support and social comparison compatibl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multiplexity of career-related social network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6(1), 7-18.  
DOI : 10.1111/jasp.12338
- [14] E. M. TenBrook (2016). *Social comparison: dimensional influences on academic and occupational choice*. Iowa State University.  
DOI : 10.31274/etd-180810-4779
- [15] J. Yun & Y. Kang.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chievement goals orient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Forum for Youth Culture*, 155-183.  
DOI : 10.17854/ffyc.2018.04.54.155
- [16] X. Li, Z. J. Hou & Y. Jia (2015). The influence of social comparison on career decision-making: Vocational identity as a moderator and regret as a mediat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6, 10-19.  
DOI : 10.1016/j.jvb.2014.10.003

- [17] J. U. Kim & J. E. Lee.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avoidance goal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5), 315-331.  
DOI : 10.22251/jlcci.2017.17.5.315
- [18] K. U. Yoo & K. H. Lee. (2016). The influenc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n career anxiety: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areer goal discrepancy and self-encour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3(3), 407-429.  
DOI : 10.16983/kjsp.2016.13.3.407
- [19] N. R. Kim & K. H. Lee.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career indecision: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2), 175-191.  
DOI : 10.6115/fer.2019.021
- [20] E. J. Porfeli, B. Lee, F. W. Vondracek & I. K. Weigold.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5), 853-871.  
DOI : 10.1016/j.adolescence.2011.02.001
- [21] E. J. Porfeli, B. Lee & F. W. Vondracek (2013). Identity development and careers in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Content, process, and structure. In W. B. Walsh, M. L. Savickas, & P. J. Hartung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33-153.  
DOI : 10.4324/9780203143209
- [22]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DOI : 10.1037/0033-295X.84.2.191
- [23] M. S. Kim. (2020). The relation between career activities and career matur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involve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7), 139-162.  
DOI : 10.22251/jlcci.2020.20.7.139
- [24] R. W. Lent, S. D. Brown & K. C. Larkin. (1986). Self-efficacy in the prediction of academic performance and perceived career op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3), 265.  
DOI : 10.1037/0022-0167.33.3.265
- [25] J. H. Kim.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0), 613-634.
- [26] Y. K. Hong, K. S. Lee, H. J. Song & M. S. Baek. (2012). The effect of self focused attention, trait anxiety and self-efficacy on social phobia.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1(1), 267-286.
- [27] B. R. Lee, J. H. Chung, J. L. Lee. (2014). Validation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in Korean (VISA-K).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3), 1163-1181  
DOI : 10.15703/kjc.15.3.201406.1163
- [28] West, S. G., Finch J. F. & Patrick J. Curran. (1996). The robustness of test of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DOI : 10.1037/1082-989X.1.1.16
- [29] A. Y. Kim, I. Y. Park.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 [30] Y. H. Park. (2020). Medi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5), 89-98.  
DOI : 10.14400/JDC.2020.18.5.089

## 윤 준 현 (JunHyun Yoon)

[정회원]



- 2013년 2월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2017년 2월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심리, 진로, 교육

· E-Mail : kk4369@naver.com

## 손 영 미 (Youngmi Sohn)

[정회원]



- 2018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임상 및 상담심리학)
- 2005년 2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문화 및 사회심리학)
- 201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진로, 상담, 정신건강, 일과 삶의 균형, 여성

· E-Mail : shonym@konyang.ac.kr